

3/15/15

설교 제목: 예수님이 걸어 가신 십자가의 길 4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복음 2:13-22

- (요 2: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절관주** 신 12:5, 신 16:6, 말 3:1
- (요 2: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 (요 2: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 (요 2: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 (요 2: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절관주** 시 69:9
- (요 2: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 (요 2: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절관주** 마 26:61, 막 14:58
- (요 2:20)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 (요 2: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 (요 2: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절관주** 눅 24:8, 요 14:26, 시 16:10

지난 주 우리는 본문 바로 앞 1-11 절을 통해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첫 번째 이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정도의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적,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고 단 한 번뿐인 이적을 행하신 분이심을 똑부러지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요 1:29)고 증언한 것에 더하여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대속의 주”이심을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요 2: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 2: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요 2: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요 2: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 년간 노예 생활을 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하나님을 경배 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강퍽하여져서 노예로 부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 재앙)을 하나씩 내리셨습니다.

7 번째 재앙까지 변화가 없던 바로 왕이 8 번째 재앙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8 번째 메뚜기 재앙이 내리자 남자들만 떠나라고 하고, 9 번째 3 일 동안 천지가 깜깜하게 되는 흑암 재앙이 내리자 짐승은 남겨두고 사람만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10 번째 짐승의 첫새끼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리자 이제야 두손 두발 다들고 귀금속까지 쥐어 주며 떠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타가 된 10 번째 재앙, 즉 애굽의 모든 장자 및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

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그 명령을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담을 넘어가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담을 넘어갔다'를 뜻하는 유월이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사건이 유월절에 일어났다는 사실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맞춰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행위는 곧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이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9 절 보시겠습니다.

(요 2: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당신이 모든 사람의 대속의 주라는 사실을 선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고전 5:7)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과 명령의 정당성을 입증할만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요 2: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한마디로 네가 뭔데, 네가 누구인데 이런 짓을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깜짝 놀랄 표적을 행하시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요 2: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참뜻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황당한 말이지요.

(요 2:20)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참고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차례 건축되어졌습니다.

제일 처음 것은 솔로몬 왕이 7 년에 걸쳐 지었고, BC 587 년 바벨론 침략시 파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것은 스투바벨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백성들과 함께 재건 (BC 538-BC 516 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것은 유대인에게 유화 정책을 쓴 이방인이었던 헤롯 왕에 의해 BC 20 년 기존 스투바벨이 재건했던 초라한 성전을 화려하게 증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때까지 완성되지 못하였고 한참 뒤인 AD 63 년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와같이 말씀하셨으니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 수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요 2: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헐라고 말씀하신 성전은 당신의 몸을 가리키신 것이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당신의 부활을 뜻하신 것이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 2: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성전은 예수님이 본문 16 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면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4: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 14:11)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시라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이시라면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성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인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국가적, 신앙적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은 몸이 예배당 건물 안에서 있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히 9: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히 9: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 9:25)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히 9: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것은 단지 성전 자체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외형적인 믿음에서 내적인 믿음으로,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로 바꾸어 놓으시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것들이 다 필요하기는 한데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며 돈 주고 받는 모양이 경건하지 못하고 시장 바닥 같아서 보기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희생 제물 자체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전만 찾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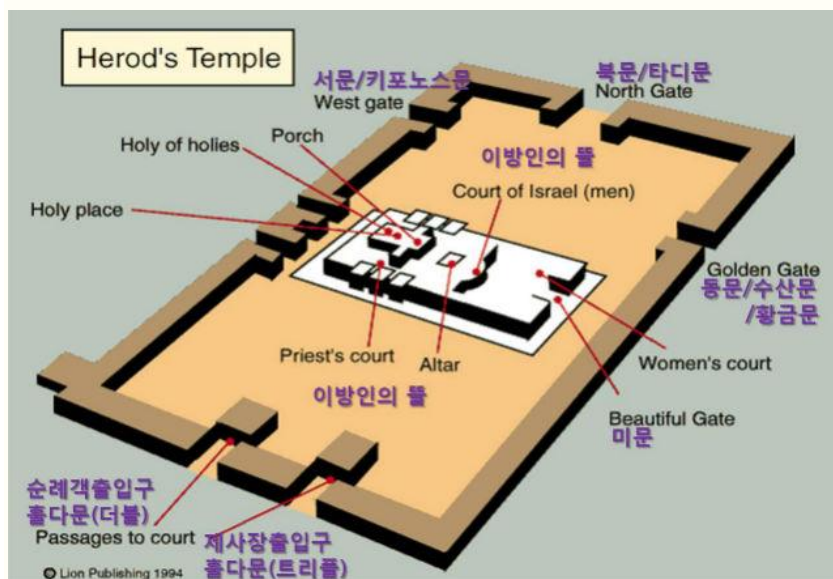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삶의 원동력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감사의 이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통해 던지신 또 한 가지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몇 겹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엄격한 의미의 성전은 성소입니다.

제사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데 거기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일 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드리러 온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허용되는 구역은 성소 밖에 있는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뜰 밖에 있는 구역이 [여인들의 뜰]로서 제사드리러 온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구역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제일 외곽구역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물에 바쳐질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면 들어와 예배드릴 수 있는 구역인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거기를 어지럽혀지게 만들어 이방인의 예배를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왕상 8:41)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왕상 8:42)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왕상 8:43)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다음과 같습니다.

(사 56:6)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사 56:7)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막 11:17 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뜰에서 짐승들과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후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56:7 을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민’이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즉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유대인만의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신앙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보다 순수하고 경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 2: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 2: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품되 그 열심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속 계산속에서의 열심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교회를 찾고 신앙 생활을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매년 심혈을 기울여 지은 성전이었지만 허망하게 파괴되는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헤롯 때부터 야심차게 개축한 예루살렘 성전도 완공된지 7년 만인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되신 예수님은 단 한 번 장사되신지 사흘만에 다시 살아 일어나셨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성전 건물에 믿음과 소망을 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오로지 성전의 주인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목숨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